



家, 你的家 Mi Casa Your Casa 미까사 유어까사

Design Esrawe Studio www.esrawe.com, Cadena Concept Design Team www.cadena-asociados.com

Concept & Creative Direction Héctor Esrawe, Ignacio Cadena

Installation Héctor Esrawe, Ignacio Cadena

Project Direction Javier García-Rivera

Prototype Magsa

Production Disemo

Editor Inwon Seo

Photograph E+C (Except Separate Caption)

미까사 유어까사(Mi Casa Your Casa)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공공공간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설치물이다. 우리는 천천히 거리로 되돌아감으로써 사회생활에 다시 통합되고자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관계를 다시 구축하고 가족 친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고 창조하려 노력할 것이다.

미까사 유어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공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에 설치된 이후 순회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도시의 박물관, 거리, 공원에 배치되었다. 2017년 멕시코에서는 대지진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의 역할도 했다. 인류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 설치물은 감성적이고 장난스러운 디자인으로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상호작용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과 이면에는 사회화 경향이 자리하며, 통합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상상력, 열린 마음, 상호 창조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설계팀은 온기, 평안, 안전, 환영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고 모든 관객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와 픽토그램을 선택했다. 그런 형태 덕분에 설치물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고, 권장하는 거리를 고려해 여러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설계팀은 사람들이 살고 놀고 함께 음악을 만들고 서로를 바라보고 배우고 축하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독특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려는 목적을 설정함으로 말이다.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과 진배없다.

미까사 유어까사는 독특한 상징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를 띤 강하고도 미묘한 상징체이며, 사용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만들어내고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살아 있는 캔버스와 다름 아니다.



家，你的家（Mi Casa Your Casa）是一个在保持社交距离的同时，构建社区，并为公共空间重新注入活力的装置作品。它鼓励人们逐渐回到街头，再次融入社会生活。为了重新构建起有意义的人际关系，同家人亲友交谈，分享新的想法，设计团队尝试努力去发现和创造更好的方法。

虽然，“家，你的家”并非是新冠疫情之后建成的，但因为具备构建地区社会的纽带感，具有改变公共空间的特点，因此在当前的状况下，再次受到了外界的瞩目。它在美国亚特兰大首次落地后，作为一个巡回项目，曾被布置在不同城市的博物馆、街道和公园里。2017年，它还被用作在墨西哥地震中流离失所的家庭们的临时收容所。

该装置通过感性和有趣的设计活跃公共空间，展示出互动的价值。该项目的核心和内里是具有社会化的倾向，旨在构建融合的社区。而实现这一目的的基础是想象力、开放的心态以及共同创造和幽默的精神。

设计团队选择了与温度、舒适、安全和欢迎的概念具有关联性的最为基础的形态和图形标识，为的是让所有参观者都能够辨认出来。因此，该装置物得以配合不同的场景进行重组，在考虑保持社交距离的情况下，能够用于承办各种活动。

设计团队希望打造出人们可以一起生活、玩耍、创作音乐的，能够看着彼此学习和庆祝，活跃地区社会的基本原则，倡导人们通过独特、健康、有价值的新方式来体验和感受这个世界。

“家，你的家”是一个具有几何学形态、牢固且微妙的象征体，可以说它是一张不断与使用者进行对话的、多变且拥有生命的画布。



©High Museum of Art



©Sergio Bejamao



©Jose Ignacio Hipolito

